

갈보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 1. 오늘 2부 예배 후에 7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3시 10분).
- 2. 오늘은 선교 보고 주일입니다. 2017년 단기선교(통가, 바누아투) 보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 사명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3. 갈보리 성경통독 150일 계획 이번 주 범위는 로마서 12 데살로니가전서 2장까지 입니다.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 통독을 통해 말씀을 읽는 눈이 더 크게, 더 넓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각 공동체장들은 통독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들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번 주 수요 예배 설교는 신정엽 목사님입니다(서울 우림 교회 담임목사, 이성철 목사 파송 교회). 우림교회 선교팀이 특송과 간식으로 섬깁니다.
- 5. 다음 주는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임원들은 잘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6. 개업을 축하 드립니다. 이규임 권사 Fuku Sushi 주소: 183 Pembroke St, Hamilton (Waikato Hospital) 전화: 07-838-2757
- 7.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2017년 표어 · '다음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 (신6:4-9)

-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 2.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 3.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 4.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담임목사**: 이태한

021-968-388 LTH-07@calvary.org.nz

부목사: 이성철

021-563-634 logosid@hanmail.net

부목사: 박태신

021-077-8382 nuggy308@hanmail.net

去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www.calvary.org.nz

예배 안내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_
찬	양	주일 찬	양단	주일	1부 예배	오전
예배로 부름		역대상 16:	8-10			
◎찬	송	즐겁게 안식할 날	43장	청년	! 모임	5
⊚신	앙 고 백	사도	신경	성경공부		
찬	송	샘물과 같은 보혈은 2	258장			
대표기도		정관영 장로			기노 / .	조주찬 형
성	경 봉 독	로마서 1	12:2			
찬양	냥대 찬양	그 이름 나무십자가 찬		수요 찬	. 예배 양	오후
선	교보고	맡	은이	전 기	o 도	수 <u>s</u> 김
설 교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성경봉독		
		이태한	목사	특	송	우림교:
찬	송	십자가 군병되어서 35	53장	설	교	신
헌	금 기 도	인	도자	광	고	
교	회 소 식	인	도자	찬	송	
⊚응	답 송	살아계신 주(1,2절)		주 기	ᅵ도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8월 교회일지

금요저녁기도회: 8월 11일(금요일) 전도주일: 8월 20일(주일) 권사기도회: 8월 27일(주일) 선교회 주관 수요예배: 8월 30일 (수요일)

8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차영철/김순자 새신자안내: 박혜숙/이정인 최희숙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제란/김명옥

유현남/민경아

전 11시 20분

오후 3시

형제

후 7시 30분

찬	양	수요 찬양단				
기	도	김현주권사				
성경	봉독	인도자				
특	송	우림교회 선교팀				
설	교	신정엽목사				
광	고	인도자				
찬	송	511장				
주 기	ㅣ도	다같이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최희숙 집사 다음 주일: 현석호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소정훈 자매 8월 9일 수요: 박제란 권사 8월 9일 애찬: 한상순 집사 8월 13일 주일: 김교섭 장로 8월 13일 청년부: 이예찬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 1.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 2. 삶의 여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헤쳐 나가도록
- 3. 9월 23일에 있는 총선에 모든 그리스도인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하도록.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네팔(인도) 전기봉 선교사 소식입니다.

이 목사님 가뭄으로 대지가 타 들어갔었는데 몬순 기후 장마전선이 몰려와서 농부들의 일손이 바빠지고 있는 인도 남부의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올 시점에 허리 통증이 심해서 선교사역을 이제 끝내야 하나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한국으로 들어와서 경희 의료워, 세브라스 몇군데 병원을 찾아보았지만 모두 척추 수술을 권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파도 약 한 첩, 침 한번 맞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충청도 친구 목사 게스트하우스에서 기거하며 밥을 해먹을 수 없어 사먹으며 똑바로 한번 서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모금해 온 성전건축 후원금을 돌려줘야 하나 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버려진 탕자처럼 2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꾸부정하게 작대기를 짚어야 간신히 몇 발자국 걸을 수 있는데 그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2003년도 처음 심장 혈관이 막혀 5미터도 건지못하던 것과 똑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옆에 돕는 배필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비참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살피다 100년 허리 정선근 박사가 쓴 책을 한권 구입해서 2번읽고 강원도 명파 마을 최 북단 조그마한 기도원 동굴에서 선교를 접어야 하는지 계속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척추를 못쓰게 해서 걷지도 일하지도 못하게 하며 배우자도 없이 혼자서 15년을 외발로 하루같이 험난한 오지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지 등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 정립하고자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독한 마음을 먹고 올라갔습니다.

허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선교를 접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면 계속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로 금식하며 매일 3번씩 말씀과 기도로 매달렸 습니다. 체력 안배를 위해서 팔꿈히기, 턱거리, 걷는 연습도 합니다. 선교를 접으면 이 나이에 죽지않으면 빈둥빈둥 뭘 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려 몸부림칩니다.

백년 허리 책 내용대로 잘못된 자세를 바르게 하며 기도에 힘을 썼더니 20일이 지나면서 직립으로 걸을 수 있게 되고 통증도 점차 수그려 들고 회복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일 작정하고 올라갔지만 일찍이 응답을 주셨으니 30일로 마치고 친구목사들이 올라와서 기도원에서 부흥회로 천국 잔치를 가졌습니다. 감사와 찬송에 힘이 더해져서 수평선 저 멀리 북한까지 퍼져 감을 느꼈습니다. 급히 인도 티루부루로 돌아와서 성전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